



「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 하는 인권 존중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06258)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야구회관 4층 Tel. 02-572-8411, Fax. 02-572-7041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페이지
배포일시	2023.05.30(화)	담당부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신사업팀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 충청남도 우승!

-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에 5-2 승리하며 우승, 조범준(전 키움) 최우수선수상 수상
- 2년 연속 성공적인 개최로 생활체육 야구 저변 확대에 중추적 역할 기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 이하 협회, KBSA)가 주최한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에서 충청남도가 우승을 차지했다. 충청남도 마운드를 이끈 투수 조범준(전 키움)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5월 28일(일) 오전 10시,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개최된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충청남도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5-2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생활체육 야구 발전을 위해 개최한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는 다수의 프로 출신 스타들이 참가했으며 각 시도명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명예를 건 승부를 펼쳤다.

28일(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광주 김진우(전 KIA)를 비롯하여 충남 김지열(전 KT), 조범준(전 키움), 임도혁(전 KT), 하성진(전 SSG) 등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치열한 승부를 이끌었다.

향후 전국체전 일반부로의 편입을 도모하고 엘리트 야구와 생활체육 야구의 상생, 야구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시도대항 야구대회는 2022년 1회 대회에 이어 2023년 2회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대회 공로상을 수상한 천안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서덕규 회장(충남 팀 단장)은 "시도대항 야구대회는 프로 무대를 밟지 못한 선수, 재기를 꿈꾸는 선수 등에게 야구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며 충남의 '천안 메티스'처럼 다른 시도에도 실업야구단·시민야구단 창단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대회 우승팀인 충남도 천안 메티스 소속 선수들과 충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어우러져 우승을 일구어냈으며 충남의 우승을 통해 타 지역의 실업·시민팀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 시도대항 야구대회' 우승 시도인 충청남도에는 시도 지원금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준우승 시도인 광주광역시에는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지역 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끝.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